

[ 사회 ]



전남대 졸업식 이 학위증을 받고 있다.

전남대는 26, 27일 이틀동안 각 단과대별로 2007년도 학위수여식을 갖는다. 26일 오전 열린 자연과학대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위증을 받고 있다.



조선대 졸업식

조선대는 26일 오전 체육관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박사 112명, 석사 505명, 학사 4천195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겨울의 끝자락** 2월 27일 (음 1월 21일) ◇전국날씨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 조금	-3~8℃
주요	구름 조금	-1~7℃
포항	맑음	-2~8℃
수도권	구름 조금	-2~7℃
대전	구름 조금	-5~9℃
대구	구름 조금	-3~8℃
부산	구름 조금	-4~8℃
인천	구름 조금	-3~9℃
서울	구름 조금	-6~9℃
충청	구름 조금	-3~5℃
경상	구름 조금	-2~7℃
강원	구름 조금	-4~7℃
제주	구름 조금	-6~8℃
울릉도	구름 조금	1~6℃
독도	구름 조금	1~6℃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5:44 썰물 < 10:51  
여수 밀물 < 00:11 썰물 < 06:12

▲해돋이 07:06 ▲해질 18:25 ▲달뜨기 09:48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목)	29(금)	3/1(토)	2(일)	3(월)	4(화)
날씨						
최저/최고	-2/12	0/8	-1/9	1/7	2/8	-1/7

# 주요대 “정시모집 논술 폐지”

## 등급제 폐지 따라... 수시모집 인원은 늘리기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들이 올해 대입전형에서 정시모집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수시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학들은 또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지문이나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유형은 내지 않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줄일 계획이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2009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논술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며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는 남겨두되 자연계 논술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수능에서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변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며 “정시모집 전형에서는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양대도 정시모집 전형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논술을 폐지하면서 수능 반영비율을 다소 조정키로 했다.

차경준 입학처장은 “서울컴퍼스 정시모집 전형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논술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전형요소 반영비율도 조금 조정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도 정시모집 전형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대는 정시논술 전면폐지 방안과 일부 모집단위 논술고사 실시 방안을 두고 고

심중이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정시모집 전형 인문계 논술은 그대로 유지되되 자연계 논술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강대의 경우 수능에 입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올해 입학전형에서는 각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서강대의 경우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이 전체 정원의 59%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61%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줄일 계획이며 수시전형 논술고사에서는 영어지문이나 수리풀이식 문제 등 ‘본고사형’ 문제는 가급적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광주고법 ‘신선한 逆발상’

## “민원인 편의 더 중요” ARS시스템 폐지

관공서나 기업, 주요 공공기관 등이 민원 전화를 ‘ARS 전화안내 시스템’으로 신속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이 9년동안 운영해 온 ARS시스템을 폐지하고 직접 교환원 연결 방식으로 바꾸는 역발상을 내놓았다. 광주고법의 이같은 결정은 ARS 시스템에 따른 비용 절감보다는 민원인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광주고법은 “27일 오전 9시부터 광주고법을 비롯한 광주지법·가정지원 등 3개 법원 청사의 민원전화 ARS 시스템을 직접 교환원 연결 방식으로 바꾼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행 ARS 시스템이 관련 부서 담당자와 연결되기까지 통상 7~8단계, 많게는 16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지난 13일 취임한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은 취임 이후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전화를 직접 교환원 방식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성주 광주고법 공보판사는 “ARS는 애초 흡소빙 업체 등 일부 기업체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관공서로 확대되면서 행정편의적 측면으로 흐른 경향이 있다”며 “ARS의 경우 담당자까지 연결되는 데 1분 이상 걸릴 정도로 ‘속 터지는’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많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법원의 ARS 사용 건수는 5만7천547건, 월 평균 4천796건이었고 ARS 접속 후 교환원과 연결건수는 월평균 3천25건, ARS 접속 후 업무담당자와 직접 통화건수는 1천771건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서 교사가 교장 됐다

## 교장·교감·전문직 인사 광주 159명·전남 286명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6일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159명과 28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월 1일

자로 단행했다. <인사 명단 20면> 광주시교육청의 유·초등 인사대상은 교장 48명, 교감 20명, 교육전문직 22명 등 모두 90명이며 중등은 교장 28명, 교감 14명, 교육전문직 27명 등 69명이다. 특히 품과고 정병표 교사가 치평

중 교장으로 특별채용돼 교장공모제 시행 이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날 초등 180명, 중등 106명 등 286명이 자리를 옮기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교장 신규 승진자는 46명(초등 31명·중등 15명), 교감 승진자는 36명(초등 22명·중등 14명)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평검사 495명 인사 부부장 승진 유보

법무부는 26일 평검사 전보 407명·신규 임용 82명·의원면직 6명 등 총 495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과 산하 지

청에는 모두 5명의 신규 임용 검사가 발령됐다. <인사 명단 20면> 법무부는 특히 인사 관행상 13년차를 전인 고검 검사급 부부장 검사로 승진시켜왔으나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가 평검사보다 오랫동안 수사 부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25기 검사 50명의 승진을 유보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 광주지법 법관 75명 분석해 보니

## 전남대·조선대 등 지방대 출신 늘어 졸업 고교도 다양해지고 女판사 급증

명문고-서울대 출신, 남성으로 대표되던 법관의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 송승훈-최수진, 강세빈-김민정 판사는 부부판사로 집과 직장에서 동고동락하게 됐다. 광주지법 법관 중에는 의사·금융기관·국정원·노무사 출신 등 이색 경력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금융계 출신으로는 정경현 부장판사와 김영아 판사가 있고, 의사 출신은 유화진 판사와 김연경 판사(치과)가 있다. 검사 출신으로는 정희일·박미희 판사, 변호사 출신은 이정재 판사가 있으며, 장용기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모두 경험했다. 이밖에 국정원 출신 송승훈 판사·노무사 출신 김경배 판사 등은 독특한 이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최인규 공보판사는 “법관들의 다양한 경력이 각종 전문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전문영역 사건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요고교 6명으로 가장 많지만, 5명이 고교 경력자 시행 이전에 졸업한 부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이다. 또 송승훈-최수진, 강세빈-김민정 판사는 부부판사로 집과 직장에서 동고동락하게 됐다. 광주지법 법관 중에는 의사·금융기관·국정원·노무사 출신 등 이색 경력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금융계 출신으로는 정경현 부장판사와 김영아 판사가 있고, 의사 출신은 유화진 판사와 김연경 판사(치과)가 있다. 검사 출신으로는 정희일·박미희 판사, 변호사 출신은 이정재 판사가 있으며, 장용기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모두 경험했다. 이밖에 국정원 출신 송승훈 판사·노무사 출신 김경배 판사 등은 독특한 이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최인규 공보판사는 “법관들의 다양한 경력이 각종 전문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전문영역 사건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개원 10주년기념 2월 3일만 특별이벤트 =

#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을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사무관 0361-8111  
학원 029-8111

매일 18시 공인중개사시험 대비합성 전국 수석 2명 특별면담(합격 후) 진행하며 2대 1교수인원 2명에서 4명까지 확대! 100% 합격률! 100% 합격률! 100% 합격률!

재강 3월 3일(토) 10시

합격 100% 보장! 100% 합격률! 100% 합격률!

국비무료 100% 합격률!

---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합격률 100% 보장! 100% 합격률! 100% 합격률!

# E-Supporter 어학원

http://www.e-supporter.co.kr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어학원에 비해 가격 최저! 효과 최고!

**E-Supporter가** 영어공부 하기 좋은 이유?

- 1. 가격상 등등 문제 시스템
- 2.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 제공
- 3. 100%의 영어사회능력 향상 보장
- 4. 케미스트리까지 배워줌

필리핀 어학연수의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단돈 20분씩 연수비용 파격적 할인!

☞ 비용내 포함 내역 (항공료는 별도)

- 최저 연한 10만 원
- 항공권 호텔 숙박
- 필수 할애 식사 등의 각종 편의 제공
- 직 접통화 가능한 무료 전화

연수비용	1인	2인	3인
1개월	1,980,000	2,980,000	3,980,000
2개월	2,180,000	3,180,000	4,180,000
3개월	2,380,000	3,380,000	4,380,000
4개월	2,580,000	3,580,000	4,580,000

문의 0621 264-0882, 010-2255-0459